



## 여성 대상 범죄 보도 프레임

2014년 성폭행 사건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전후의 비교

김영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사수료

윤영민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 Frames of Reporting on Crimes Against Women

A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 the Damages Judgement Due to the Press Coverage on the Sexual Assault in 2014

**Young-eun Kim\***

(Ph.D. Candidate, School of Media and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Youngmin Yoon\*\***

(Professor, School of Media and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Crime news often sensationalizes incidents, particularly when women are the victims. While many studies have suggested that improved reporting practices and proper reporting guidelines are solutions for improper crime reporting, the reporting of crimes against women still has issues to tackle. Media coverage of such crimes is important because it shapes the understanding of the issue through framing. This study examined the types of crimes against women and the perpetrator-victim relationship in the media from 2003 to 2022, and how the framing of these crimes changed, particularly before and after the court awarded significant damages to the family of a victim due to the media over-reporting of a sexual assault in 2014, also known as 'the Ko Jongseok case.' A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A total of 687 articles were analyzed from Chosun Ilbo, Dong-A Ilbo, Hankyoreh, and Kyunghyang Shinmun. First, the research revealed disparities between the types of crimes reported in the media and the actual incidence of these crimes. It highlighted that more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were the most frequently covered. Moreover, analysis of the perpetrator-victim relationship data demonstrated that strangers (29.0%), relatives (27.5%), acquaintances (21.4%), and lovers (20.4%), with about 70% of crimes against women occurred between acquaintances. Unlike other crimes, crimes against women are overwhelmingly perpetrated by acquaintances, so there is a need for official statistics and measures to be taken. Regarding the format of frames, there was an observable shift: thematic frames, which extensively explore the

---

\* gerade97@korea.ac.kr, first author

\*\* ymyoon@korea.ac.kr, corresponding author

causes of incidents and societal issues, initially increased while episodic frames decreased. Episodic frames, which accounted for 94.3% of all format frames before 2014, decreased to 87.2%, and thematic frames, which were 4.1%, increased to 9.7%. However,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decline in thematic framing. In terms of content frames, the human interest frame experienced a sharp decrease after 2014 from 40.2% to 23.8%. Conversely, frames associated with victim blaming - consistently identified as problematic in previous studies - and the boundary-making frame, which perceives crimes against women as mere criminal cases or those involved as distinct from the general public, have increased. In addressing crimes against women, the media should take on the responsibility of scrutinizing underlying causes, perpetrator relationships, and societal safety nets to identify potential structural issues. Objective, gender-sensitive reporting and the providing of appropriate information can significantly impact this issue. This necessitates media self-awareness, continuous self-examination, journalist training, awareness campaigns, and further academic research into crimes against women.

**Keywords:** Media Framing, Reporting on Crimes Against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Femicide

## 국문초록

범죄뉴스는 늘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다. 그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그러한 경향은 더 두드러진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취재 관행 개선과 적절한 보도 준칙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기도 했지만, 여성 대상 범죄 보도는 여전히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언론은 프레임링을 통해 이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때문에 여성 대상 범죄 보도는 더욱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년간 언론에 비친 여성 대상 범죄의 종류 및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살펴보고, 여성 대상 범죄 보도의 프레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내용분석을 통해 고찰했다. 특히, 성폭행 보도에 대한 언론의 과도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에게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판결받은 2014년 전후를 비교했다. 분석에 사용된 기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보도 총 687건이다. 연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범죄 종류는 실제 범죄 발생률과는 다르게 더 강력한 범죄(살인)가 가장 많이 보도되었으며, 가해자는 티인(29.0%), 친족(27.5%), 지인(21.4%), 애인(20.4%) 순으로 많았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약 70%가 친족, 지인, 애인 등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형식적 프레임의 경우, 사건의 원인과 사회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주제적 프레임이 증가하고, 일화적 프레임은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를 확인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주제적 프레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내용적 프레임에서도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긍정적이나, 선행연구에서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되어 온 피해자 책임 프레임과 여성 대상 범죄 사건을 또 하나의 범죄 사건으로 보거나,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일반인과는 동떨어진 사람들로 비추는 경계 만들기 프레임이 오히려 증가했다.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의 경우 그 원인, 가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안전망 등의 문제를 면밀히 따져 사회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는 역할을 언론이 해줘야 한다.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보도와 적절한 정보의 제

공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언론 내부의 문제의식과 지속적인 자성 노력, 언론인 교육 및 인식 개선 등이 요구되며, 여성 대상 범죄 관련 더 많은 학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 프레임, 여성 대상 범죄 보도, 여성 대상 폭력, 페미사이드

# 1. 서론

2022년 9월 14일, 30대 직장인이 3년 가까이 스토킹한 직장 동료를 지하철역 공중화장실에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다. 언론은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관련 대책의 필요성, 6년 전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발전된 게 없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기사도 간간이 눈에 띄었지만,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상세한 과정들과 가해자 신상에 대한 정보가 주로 자극적으로 다뤄졌다. 언론은 가해자가 ‘폭우로 인해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날씨’까지 검색했다’라는 것, 가해자의 대학 동기가 “지극히 평범한 친구였다. 여자들과 갈등 없었다”라고 한 인터뷰, 그리고 ‘가해자의 신상 공개 사진과 실제 얼굴이 왜 다른가와 같은 내용들을 앞다퉈 보도했다.

많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범죄 보도는 늘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었다(권인숙·이화연, 2011; 김희승, 2016; 김훈순, 2004; 박성호·윤영민, 2016; 박용규, 2001; 이완수·홍성철·송상근·최명일, 2016; 전명국, 2015; 정용국, 2012). 사실을 보도하고, 그 사실에 근거해 왜 이런 범죄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제도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호기심, 분노, 공포 등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과 내용으로 독자를 끄는 데 급급하다. 사실 범죄 보도는 1830년대 미국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 ‘뉴스’라는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대중 신문(penny paper)의 등장 때부터 인기 상품이었다(Schudson, 1978).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살인, 강도 사건들은 대중의 흥미와 신문 판매를 위해 더 극적으로 다뤄졌다. 초창기에는 살인 재판의 법정 진술 기록을 일일이 옮겨 적은 기사가 1면을 차지하는 일도 흔했다고 한다. 지금의 우리 언론이 유독 범죄 보도에서 선정성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유도 결국은 범죄 보도가 대중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범죄 기사를 쓰는 사건기자들조차 국내 범죄 뉴스가 대체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자극적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양영유·이완수, 2020).

뉴스가 ‘세상을 보여주는 창’이라고 하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언론은 어젠다 세팅을 통해 중요한 이슈를 만들어가고, 프레이밍을 통해 그 이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어느 정도 의도한다. 즉, 어떤 문제의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거나 반대로 생략 혹은 주변화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일정한 방향의 해석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Entman, 1993). 그리고 뉴스는 특히 주류의 시각을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 보도 내용을 타협하거나 저항적 시각을 주변화하는 전략을 사용한다(Gitlin, 1980). 김훈순(2004)의 지적대로 ‘여러 뉴스 중

에서도 범죄 뉴스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명백한 힘의 불균형과 균열을 읽어낼 수 있는 텍스트다. 따라서 여성 대상 범죄 보도에 뚜렷한 프레임의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증명되었다. 여성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난받고, 가해자의 행동은 정당화되는 남성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인데(Berns, 2001; Carl, 2003; Fairbairn & Dawson, 2013; Gillespie, Richards, Givens, & Smith, 2013; Taylor, 2009), 한국처럼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이라면 언론이 어떤 프레임으로 범죄를 보도하는지는 더 명확하게 보인다.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 폭력, 성범죄 및 매춘 등의 보도를 분석한 많은 국내 선행연구들은 범죄 보도에 남녀 간 뚜렷한 프레임의 차이가 있으며,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김선남, 2002; 김훈순, 2004; 유선영, 1999; 홍지아, 2009, 2017). 그중 유선영(1999)은 1990년대 중후반 2년간의 성범죄 보도 프레임을, 김훈순(2004)은 2000년부터 2년간의 여성 대상 범죄 보도 전반에 대한 프레임을, 홍지아(2009)는 그 이후 시기인 2008년의 성폭력 범죄 보도 프레임을 분석했고,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고 있다는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언론의 보수성은 기존 체제의 입장을 대변하는 출입처 중심의 취재 관행, 오랜 시간을 두고 굳어진 언론사의 조직문화나 제작 시스템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김훈순, 2004; 유선영, 1999).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재 관행 개선과 적절한 보도 준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정용국, 2012; 홍지아, 2009). 실제 2008년 조두순(일명 '나영이 사건' 가해자), 2010년 김길태(일명 '부산 여중생 납치 사건' 가해자), 2012년 고종석(일명 '니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등장에 따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경쟁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12월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총 10개의 실천 요강에는 2차 피해 방지, 사생활 보호, 지나치게 상세한 보도 자제, 피해자 인권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기여 등 성범죄 보도 시 지켜야 할 세부 권고가 명시되어 있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 주요 진보 일간지는 이러한 권고 기준 마련 움직임에 부응해 기존 자사 취재 보도 준칙을 손보거나, 새롭게 성범죄 보도 준칙을 제정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러한 자성의 노력 이후에도,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한 비난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이미나, 2013), 2014년에는 고종석 사건 피해자 가족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결과까지 가져왔다. 손해배상 소송 직후에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언론인 패널들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언론 보도행태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김희영, 2014). 2014년 이후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에 대한 언론사 내 경각심이 생겼을 거라고 판단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년간의 여성 대상 범죄 보도를 살펴보고, 2014년 언론사 대상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후로 국내 범죄 보도 프레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선행 범죄 보도 프레임 연구가 대부분 질적 연구인 바, 양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번 연구는 특히 그 중요성이 높다. 양적 방법론을 통해 대량의 정보를 수치화함으로써 그간의 연구에 더해 프레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여성 대상 범죄 보도의 범위를 성범죄에만 국한하지 않고 살인, 강도, 성폭력 및 폭력 등 강력범죄 중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 보도 전반을 다루고자 한다. 성범죄에만 국한할 경우 스토킹 사건이나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등의 괴롭힘과 폭력의 결과로 발생한 강력사건까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중 상당수가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주요 범죄 사건이나 제한된 기간만 살펴보기보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간의 여성 대상 범죄 전반을 살펴보고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여성 대상 범죄 보도 프레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실증하는 학문적 기회로 삼고자 한다.

## 2. 기존 문헌 검토

### 1) 범죄 보도와 여성

뉴스는 우리가 현실을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이지만, 뉴스가 보여주는 현실은 실제와 거리가 있다. 특히, 범죄의 경우 실제 범죄율과 관계없이 선택적으로 더 자주, 더 자극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이는 수많은 연구로 실증된 바 있다(Dowler, Fleming, & Muzzatti, 2006; Marsh, 1991; Sacco, 1995; Sheley & Ashkins, 1981) 범죄 뉴스는 언제나 선정적이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보도 행태로 비난받는다. 전 세계적으로 그 양상은 비슷하며(Gius & Lalli, 2014; Hernández, 2018; Marsh, 1991; Sutherland, Easta, Holland, & Vaughan, 2019)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언론도 살인 등을 포함하는 강력범죄를 기사로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박용규, 2001), 국내 강력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기에(법무연수원, 2021), 선정성 논란에 더해 가부장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마저 지적된다.

〈2021 범죄백서〉 통계를 잠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국내 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법무연수원, 2021). 살인은 2011년 1,221건에서 2020년 805건으로 34.0% 감소하였고, 강도는 2011년 4,021건에서 2020년 629건으로 무려 82.8%나 감소했다. 방화는 2011년

1,972건에서 2020년 1,210건으로 38.6% 감소했다. 그런데 전체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지난 10년간 되려 11.7%가 증가했다. 강력범죄에 살인, 강도, 방화 외에 성폭력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지난 10년간 35.8% 증가했으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폭력 범죄나 재산 범죄 대비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은 2011년 83.9%에서 2020년 89.2%로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강력범죄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범죄 보도는 줄지 않고 있다(이재영, 2015). 이는 언론 수용자들이 사회면을 가장 많이 읽고 본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 피해자가 되는 범죄를 보도할 때 특히 더 엄밀하고 세심해야 할 언론에게 범죄 보도는 많은 독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중요한 상품으로 먼저 인식된다.

범죄 보도에 관한 연구는 미디어 분야와 범죄학 분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범죄 보도의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이 언제나 비난의 대상이다. 영국에서 시작된 범죄와 미디어 연구의 등장으로, 국외에서는 1970년대부터 상당히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Dowler et al., 2006). 실제 현실보다 범죄가 훨씬 더 많이 다뤄지고 있으며, 재산 범죄보다는 강력범죄가 언론의 집중을 더 받고, 과도한 범죄 보도가 경찰 권력이나 법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음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Dowler et al., 2006; Gius & Lalli, 2014; Hernández, 2017; Marsh, 1991; Sacco, 1995; Sheley & Ashkins, 1981; Sutherland et al., 2019). 비슷한 범죄여도 인종과 사회계층, 성별, 국적에 따라 다르게 보도되고 있는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Bjornstrom, Kaufman, Peterson, & Slater, 2010; Caetano, Cunradi, Schafer, & Clark, 2000; Harris, Gruenewald, & Tuttle, 2021; Pepin, 2016). 최근 국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언론들은 속보 경쟁 때문에 보도 과정에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피의자를 유죄로 인지하게 유도하거나, 성별이나 인종 등에 대해 차별적이고 편향되게 보도하거나, 초상권이나 익명을 보호하지 않는 보도를 자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기수·윤성연, 2017; 홍성철·이완수, 2020). 김옥조(2004)는 한국 언론들이 범죄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대부분 경찰의 발표를 인용하면서도 마치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묘사하는 경향을 비판했으며, 이천현(2006)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언론을 통한 범죄 피해자의 신원 공개 금지 등 관련 법제의 강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이 CCTV 및 블랙박스 화면에 담긴 폭력적 장면을 그대로 방송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이창훈, 2012). 최근에는 언론의 '페이지뷰' 경쟁이 치열해져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명길, 2015).

성폭행 보도의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 채 과정을 묘사하는 상업적 보도가 많다는 점이 특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홍지아, 2009),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언론의 집중 보도가 성폭력 두려움을 키워 자기 억압적 여성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비난(권인숙·이화연, 2011)도 있다. 선정적인 범죄 보도는 사건 자체를 과장하고 왜곡시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여 무력감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최현미, 1991). 테일러(Taylor, 2009)는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것) 피해자가 언론에 미치는 모습을 연구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92개의 가정폭력 살인사건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분석했는데, 오히려 피해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비난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1980-90년대 가정 내 폭력 보도 연구(Pagelow, 1981)에서도 공통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미국, 캐나다, 터키 등의 최근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Alat, 2006; Bullock & Cubert, 2002; Chagnon, 2018; Dowler, 2004; Fairbairn & Dawson, 2013; Richards, Gillespie, & Smith, 2011). 특히, 여성 대상 범죄 연구의 경우, 인종과 사회계층, 국적에 따라 언론이 어떻게 다르게 보도하고 있는지 분석하거나, 가족을 포함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이나 살인사건 보도의 보도 동향이나 프레임의 국가별, 지역별로 살펴보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범죄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내 관련 연구는 보통 성폭력, 강간, 가정폭력 등 범죄의 유형을 좁혀서 살펴보거나(권인숙·이화연, 2011; 이은비·손민정·유홍식, 2014), ‘유영철 사건’, ‘강남역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보도 내용을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송영준·홍주영, 2018; 이진로, 2004; 최현주, 2010b; 홍지아, 2009, 2017). 범죄 보도의 선정성 원인을 찾기 위해 기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도 있으나(노성호·이기웅, 1996; 양영유·이완수, 2020) 소수에 그친다. 성범죄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범죄 기사를 살펴본 연구로는 박용규(2001)와 이재영(2015)의 연구가 있다. 박용규(2001)는 20년 단위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1935년, 1956년, 1976년, 1996년 등 4년 치 신문의 사회면에 실린 범죄 기사를 8일 간격으로 표집해 범죄 보도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봤는데, 범죄 보도의 표현방식이 오랜 기간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선정성을 띠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그 원인이 언론의 상업주의적 태도와 경직된 취재 보도 체제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이재영(2015)은 강력 범죄 보도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 보도된 살인, 강간, 강도 범죄 기사를 분석했다. 2,058건의 기사 분석을 통해 실제와 달리 특정 범죄가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특정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차원의 범죄 원인이나 대



책은 낮은 빈도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2) 범죄 보도와 프레임

언론 보도를 분석하는 최근 많은 연구는 프레임 분석을 적용하고 있다. 미디어 프레임을 이해하는 것은 언론 보도를 분석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 미디어 연구에서 프레임의 개념은 오랫동안 의제 설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으나, 이제는 별도로도 충분히 많은 양의 연구를 갖추고 있다. 기틀린(Gitlin, 1980)은 언론이 1960년대의 학생 운동을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방식을 미디어 프레임링을 적용해 연구했는데, 그는 언론이 주류의 관점을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 보도 내용을 타협하거나 저항적 시각을 주변화하는 전략을 쓴다고 분석했다. 엔트만(Entman, 1993)은 뉴스 텍스트가 프레임링을 통해 어떤 특정한 측면을 ‘현저하게(salient)’ 만든다고 지적했다. 프레임링 분석은 언론 보도가 현실의 어떤 면을 부각하는지 또는 어떠한 가치관을 배제하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는 주요한 분석 틀이며, 다양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뉴스 프레임은 주류 집단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범죄 보도 프레임 연구에 많이 적용되는 분류 중 하나는 아이엔거(Iyengar, 1994)의 분류인데, 뉴스 프레임을 뉴스의 형식 또는 뉴스의 심층성에 따라 일화적 프레임(episodic frame)과 주제적 프레임(thematic frame)으로 분류한다. 일화적 프레임은 사건의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일종의 사건 중심 단순 보도 프레임이고, 주제적 프레임은 사건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다루는 이슈 중심 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세메트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 Valkenburg, Semetko, & De Vreese, 1999)가 제시한 책임 귀인 프레임(responsibility frame), 갈등 프레임(conflict frame), 인간적 흥미 프레임(human interest frame), 도덕성 프레임(morality frame), 경제적 결과 프레임(economic consequence frame) 등 5가지 프레임이 상당히 많은 언론 보도 내용분석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책임 귀인 프레임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해결한 책임을 특정 정부 기관, 집단 또는 개인에게 돌리는 프레임이다. 갈등 프레임은 시청자나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개인, 집단, 기관 또는 국가 간의 갈등을 강조하는 프레임으로 국제 뉴스 보도에 빈번하게 사용된다(De Vreese, Peter, & Semetko, 2001).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개인의 이야기나 감정을 강조하는 프레임으로 뉴스를 극화시켜 뉴스 독자의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프레임이다. 세메트코와 발켄버그는 이를 뉴스에 ‘인간의 얼굴(human face)’을 부여하는 프레임이라고 표현했는데, 범죄 기사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도덕성 프레임은 주제를 종교적 교리 또는 도덕적 처방의 맥락에 놓는 프레임이고, 경제적 결과 프레임은 개인, 그룹, 기관, 지역 또는 국가에 미치

는 경제적 영향의 관점에서 사건이나 문제를 제시하는 프레임이다. 5가지 프레임 중 책임 귀인 프레임과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범죄 보도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프레임으로 꼽을 수 있다.

여성 대상 범죄에 집중해 프레임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도 있다.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한 266개의 여성 대상 범죄의 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길레스피와 동료들(Gillespie et al., 2013)은 기존 연구의 분석을 통해 여성 대상 범죄, 특히 가정 내 폭력 보도 프레임으로 1) 피해자 비난하기, 2) 사건을 평범한 사건으로 일반화하기, 3) 독립된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 4) 가해자/피해자 평범하지 않게 보기, 5) 가해자가 병적 문제가 있으며 쉽게 구별 가능한 것으로 보기 등이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1998년에 워싱턴주 신문에 보도된 가정 내 폭력 사망 사건 기사 230건의 프레임을 분석한 벌록과 큐버트(Bullock & Cubert, 2002)는 이 중 피해자 비난을 직접적 비난과 간접적 비난으로 나누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 또한 피해자 비난하기 프레임에 포함했으며, '단순 사실'만 보도해 발생한 사건을 하나의 독립된, 평범한 사건으로 일반화하는 프레임을 '경찰 프레임'으로 분류했다. 홍콩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여성 폭력 범죄를 분석한 에르난데스(Hernández, 2018)는 가정 폭력 범죄로 명명했는지, 원인을 무엇으로 봤는지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했는지를 중심으로 보도를 분석하면서, 1) 사실/경찰 프레임, 2) 가해자/피해자는 (우리와) 다르다는 프레임, 3) 개인적 책임 프레임, 4) 사회적 문제 프레임, 그리고 5) 중국 문화 프레임으로 구분했다. 하와이에서 일어난 여성 살인 사건을 분석한 샹농(Chagnon, 2018)은 1) 범죄조사식 보도 프레임, 2) 피해자 비난하기 프레임, 3) 사회적 문제 프레임, 4)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죄 프레임 등을 도출해 내면서, 피해자 비난의 경우 계층과 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비난 양상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와 왕(Lee & Wong, 2019)은 선행 연구의 프레임에 기반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캐나다 일간지 1개에서 보도한 가정 내 살인사건을 1) 또 하나의 살인사건, 2) 뉴스 가치가 있을 때만 문제시, 3) 그가 가해자가 아닌 99가지 이유, 4) 그녀의 잘못 등 4가지 스키마로 분석하기도 했다. 연구마다 프레임의 개념이나 범위가 조금씩 다르긴 하나, 국외 연구에서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프레임과 여타 범죄 사건과 비슷하게 다루는 프레임, 그리고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프레임이 빈번하게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미디어 연구에서 범죄 보도 프레임에 대한 연구로는 유선영(1999)과 김훈순(2004), 홍지아(2009), 최현주(2010a)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유선영(1999)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2년에 걸쳐 4개의 한국 종합일간지에 실린 강간, 어린이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추문 등의 성범죄 기사를 분석해 1) 가해자 행위 중심의 서술, 2) 그래픽 묘사의 관음성, 3)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4) 경찰 시선의 반영 등 전반적으로 남성적 시선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김훈

순(2004)은 2000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2년간 조선일보와 한겨레 사회면에 실린 여성 관련 범죄 뉴스 프레임 분석했는데, 일화 중심적 뉴스는 1) 가해자 중심의 서술, 2) 여성 피해자의 타자화, 3) 남성 필자의 가부장적 시선, 4) 선정적 묘사, 5) 여성의 신체적 취약성과 수동성 강조, 6) 피해자 비난하기 등이 나타났으며, 주제 중심적 프레임 기사는 1) 선정성 부각, 2) 사회구조 탓하기, 3) 구체적 대안 부재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두 신문이 정치 성향은 다르지만, 범죄 보도 프레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여성 피해자 관련 범죄는 유형과 관계없이 성범죄가 동반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범죄의 유형과 상관없이 보도는 여성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홍지아(2009)는 2008년 1년 동안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성폭력 관련 기사를 분석했는데, 사건 중심 프레임 기사에서는 두 신문 모두 남성의 공격적 성욕을 기정사실화하고 여성을 예비 피해자로 규정하며 여성 스스로 순결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가치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 연구는 각각 19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반과 후반 등 시대를 달리해 분석했지만 한국 언론이 재생산하는 프레임이 가부장적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홍지아(2009)의 연구에서 한겨레가 피해자 입장에서 보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부 드러나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세 연구 모두 공통적으로 가해자 중심의 서술, 가부장적 시선, 선정성과 피해자 비난을 지적했다.

본 연구는 여성 대상 범죄 보도 프레임의 변화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바, 기존에 제시된 프레임 틀을 기준으로 연역적 추론을 하고자 한다. 관련 분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과 일반적으로 뉴스 보도에서 많이 쓰이는 프레임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활용한 기존 양적 연구들(Han, Sun, & Lu, 2017; Scherman & Etchegaray, 2021)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선택한 프레임 중 일부와 일반적으로 뉴스 보도 프레임 분석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세메트코와 발켄버그의 프레임 중 범죄보도와 관련성이 높은 프레임을 선택했다. 다만, 국내외 여성 대상 범죄 보도 연구들의 프레임을 보면, 각 프레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가부장적 시선은 사건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할 때 공통으로 포함될 수 있고, 피해자 비난, 사회구조 탓하기, 대안 부재는 모두 ‘책임은 어디로 돌리느냐’의 프레임에 포함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적,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프레임은 내용적 프레임에서 피해자 비난하기, 선정적 보도, 여성 피해자 타자화 등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형식적 프레임은 1) 일화적 프레임과 2) 주제적 프레임으로 구분하고, 내용적 프레임으로는 세메트코와 발켄버그의 5가지 프레임 중 범죄 보도 프레임으로도 의미가 있는 프레임 중 책임 귀인 프레임과 인간적 흥미 프레임을 활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피해자 비난하기가 바람직하지 않은 프레임으로 일관되게 지적되나, 책임 귀인 프레임을 1) 피해자 책임 프레임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사회 등에게 책임을 지우는 2) 피해자 외 책임 프레임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 보도에서 끊임없는 문제로 지적된 선정성을 강조하는 프레임은 3) 인간적 흥미 프레임,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상당히 예외적이고 특수하게 묘사함으로써 일반 대중과는 거리를 두는 프레임은 4) 경계 만들기 프레임으로 분류해 분석하고자 한다.

### 3) 국내 언론의 여성 대상 범죄 보도 행태와 손해배상 판결

대중이 특정한 이슈를 이해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데 미디어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Scheufele, 1999). 그런 미디어에서 여성은 과소재현되고 있으며, 여성 관련 뉴스의 경우 저명성이나 인간적 흥미에 따라 뉴스 가치가 결정되는 경향이 크다(김세은, 2018). 가뜩이나 선정적인 범죄 보도가 여성과 관련될 경우 인간적 흥미는 극대화되며, 그러한 언론의 보도 행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00년대에는 여성을 타깃으로 한 연쇄 살인범(유영철, 강호순 등)과 대형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고, 2010년대에는 ‘강남역 살인 사건’과 같은 여성 혐오 범죄가 두드러졌다. 2018년 미투운동을 계기로 다양한 성추행 사건들이 언론의 관심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한 성범죄(예, n번방 사건)와 각종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때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관점과 프레임은 문제로 지적되었다. 최현주(2010b)는 성적 쾌락을 위해 여성을 잔인하게 살인한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을 주요 뉴스에서 ‘개인의 심리적 결함(사이코패스)’에만 집중해 다룸으로써 사회구조적 이슈를 다루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젠더적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조차 없었던 점을 비난했고, 다수의 연구에서 미투 운동과 미투 운동 이후의 보도 분석을 통해 언론이 젠더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수아, 2019, 2021; 이나영, 2018; 최이숙, 2018; 최이숙·장은미·김세은, 2020).

2000년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연쇄살인 사건과 대형 성범죄 사건 당시 문제가 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에 대한 언론 내부의 자성의 노력으로 2012년에는 보도 권고 기준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2012년 12월,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이는 대형 성범죄 사건 보도에서 드러난 언론 보도 행태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입는 물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자성의 노력으로 탄생한 것이다. 언론사와 언론 유관 조직 내 윤리강령은 1990년대부터 제정되기 시작했지만, 성범죄 보도의 세부 지침을 마련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2018년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 기준과 실천 요강을 추가로 제정했는데, 올바른 인식의 중요

성과 함께 취재 시 유의 사항과 기사 작성 및 보도 시의 유의 사항을 상당히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언론의 자성 노력에 의해 탄생한 국내 세부 보도 지침은 국제언론단체의 관련 보도 지침(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2014)이나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국제기구의 여성 대상 폭력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Impe, 2019)보다도 앞서 탄생한 의미 있는 시도다. 2012년 이후 한겨레, 경향신문 등 진보 언론사는 별도로 성범죄 보도 관련 지침을 만들었고,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KBS,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이 젠더 데스크를 신설하거나 젠더 담당 기사를 따로 뒀다. 전반적인 보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쳐 실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권고에 대한 비판(강동욱, 2015)은 언론계, 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권고 관련 기사 인식 확대 및 교육의 필요성(김경희, 2020; 김수아, 2022; 양영유·이완수, 2020)이 강조되고 있다.

2012년 자성의 노력으로 탄생한 보도 지침이 그 의미에 비해 언론 보도 행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면, 언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예상 가능한 것은 2014년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에게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고, 기사를 삭제할 것을 판결한 법원의 판결일 수 있다. 2014년 3월 서울 중앙지법은 2012년 발생한 고종석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문, 방송, 종편채널 각 1곳씩을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모두 78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 기사 일부를 삭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박태호, 2014). 고종석 사건은 피해자의 일기장을 비롯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등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가 극에 달했던 사건으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2012~2019년까지 8년간의 언론사 손해배상액을 전수조사한 미디어 오늘의 분석에 따르면 언론사의 평균 손해배상액은 9백여만원이며(정철운, 2020a),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은 5백만원에 그친다(언론중재위원회, 2014). 즉, 7800만원의 손해배상액은 상당히 고액임을 알 수 있다. 관련해 국회에서는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토론회에 참여했던 전문가와 언론인 패널들은 특히 이번 판결이 앞으로 언론 보도 행태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김희영, 2014).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김정민과 황용석(2021)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 중앙값이 분포하나, 실제 인용액의 중앙값은 조정사건의 경우 100만원에서 350만원, 소송사건의 경우 350만원에서 2,750만원 수준이며, 이마저도 2013년 이후에는 350만원에서 75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취재 대상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는 유력한 방어수단으로

서 가능하다. 손해배상은 언론중재법 제30조 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 또는 재산상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언론사 입장에서는 금전적 배상이 따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윤성한, 2000).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을 통한 중재 사건이나 소송 등 다양한 언론 보도 피해 구제 절차들로 인해 기자들의 위험 부담은 늘 존재한다(정철운, 2020b). 특히나 일간지나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사건은 줄고,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김정민·황용석, 2021)에서 2014년 주요 일간지 및 방송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은 상당한 영향을 줬을 거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 사건들을 기점으로 실제 여성 대상 범죄 보도 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미투 운동 이후 젠더 이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연구(최이숙 외, 2020) 등 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범죄 뉴스 프레임 변화를 살펴본 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 3. 연구문제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14년 이후 보도 프레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 대상 범죄 보도 프레임을 내용분석했다. 분석 대상 언론사는 주요 일간지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4곳이며, 분석 기간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년으로 잡고, 성폭력 보도 피해 가족에게 언론사가 7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2014년 이전과 이후 프레임을 비교했다. 형식적으로는 1) 일화적 프레임, 2) 주제적 프레임, 3) 혼재된 프레임으로, 내용적으로는 1) 피해자 책임 프레임 2) 피해자 외 책임 프레임 3) 인간적 흥미 프레임 4) 경계 만들기 프레임으로 나뉘었다.

프레임 분석에 앞서 여성 대상 범죄의 개요를 파악하고자 했다. 현재 국내에는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한 공신력 있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기초자료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나 살해(페미사이드)의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박다해, 2021; 이수정·김혜진, 2019; 장미혜·이미정·주재선·고현승·이인선·이시림, 2019). 이에 언론에 보도되는 여성 대상 범죄의 종류를 파악하고, 여성 대상 범죄의 가해자-피해자 간 관계를 살펴 제한적이지만 여성 대상 범죄의 개요 파악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 **연구문제 1.** 언론에 보도되는 여성 대상 범죄는 어떤 종류며, 주요 가해자는 누구인가?

2012년 사회적 요구와 언론계 내부의 자성적 움직임에 더해 2014년 언론사 대상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까지 나온 바, 2014년 이후 언론사 내 경각심이 생겼을 거라고 판단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의 보도 프레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 **연구문제 2.** 2014년 이후 국내 언론의 여성 대상 범죄 보도의 형식 프레임(일화적 프레임/주제적 프레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연구문제 3.** 2014년 이후 국내 언론의 여성 대상 범죄 보도의 내용 프레임(피해자 책임 프레임, 피해자 외 책임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경계 만들기 프레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4. 연구 방법**

### **1) 분석 시기, 대상, 범위 및 표집**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년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했으며, 특히 과도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에게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난 2014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프레임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기사로,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국내 언론의 여성 대상 범죄 보도 프레임 변화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여성 대상 범죄 뉴스의 범위는 강력범죄 중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흉악 범죄인 살인, 강도, 성폭력 사건과 폭력 사건 중 16세 이상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여성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는 경우만 포함했다.

해외 선행연구의 경우, 연구 기간 동안 발생한 여성 대상 범죄 리스트를 관련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받아,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키워드 검색을 해 각 범죄와 관련된 정확한 범죄 보도를 분석 대상 기사로 선정할 수 있었으나(Fairbairn & Dawson, 2013; Gillespie et al., 2013), 국내에는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나,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종합뉴스 DB사이트인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해 기사를 검색해 선정했다.

빅카인즈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2018년 이전의 조선일보 기사는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했다. 빅카인즈의 경우, 사회 기사 중 사건·사고, 여성, 사회 일반만 포함했으며, 사건·사고 중에서는 성범죄, 성폭행, 음란물, 살인, 강간을 선택했다. '여성 대상 범죄'로 검색해서는 관련 기사를 표집할 수 없어, 이 범주에 속하는 기사 중 '살인', '살해', '강도', '성폭력', '성폭행', '강간',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아내' '여자친구' '애인' 중 하나라도 포함되는 기사를 검색했으며, 이 중 정치 공방이 더 중심이 된 기사(박원순, 안희정 등 정치인 성폭력 사건), 여성이 가해자인 기사(계곡 살인 등), 대표적 아동 학대 사건(원영이, 정인이 등), 해외 기사(美, 英, 총기, 히잡 등) 관련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로 설정했다. 총 21,839개의 기사가 검색됐는데, 원활한 분석 및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을 위해 매 30번째 기사를 표집했다. 단, 30번째 기사가 사설, 국제뉴스 등 분석 대상 기사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30번째 기사를 표집했다.

200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조선일보 기사는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검색해 추가했다. 조선일보 홈페이지의 경우 빅카인즈와 같은 상세 검색이 불가능해, 부득이 지면 뉴스로 한정하고, 동일 키워드로 검색했다. 이때도 총 4,024개의 기사 중 매 30번째 기사를 표집했다.

이렇게 표집한 전체 기사는 892개이며, 그중 여러 차례의 연습코딩에 사용된 기사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된 기사는 총 687개로, 조선일보 176개, 동아일보 153개, 한겨레 168개, 경향신문 190개다.

## 2) 변인과 측정

프레임 분석에 앞서 미디어에 보도되는 여성 대상 범죄의 일반적 개요를 살펴봤다. 먼저, 범죄 종류를 살펴봤는데, 두 개 이상 범죄가 혼재되어 있으면 가장 강력한 범죄 하나를 선택해(살인) 성폭력>강도>폭행) 코딩했다.

다음으로 국내 범죄 통계가 여성 대상 범죄만 별도로 구분하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바, 보도되는 여성 대상 범죄의 가해자-피해자 관계도 분석했다. <2021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타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약 60%), 여성 대상 범죄의 경우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어떠한지 현재로서는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선행연구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해외 통계에서 드러나듯, 여성 대상 성범죄나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가족과 애인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현재 국내 통계로는 이러한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이수정·김혜진, 2019; 장미혜 외,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여성 대상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함께 분석해, 여성 대상 범죄의 특성에 대한 실



증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했다. 가해자-피해자 관계는 타인, 지인, 친구, 애인, 친족, 기타 등 6개로 분류해 코딩했다. 애인에는 전/현 애인, 친족에는 전/현 배우자를 포함했으며, 기사에 등장하는 관계 중 이웃, 업무 관계인, 단골손님, 애인의 가족과 친구, 친족의 친구는 모두 지인으로 분류했다.

코딩 시 기사 제목은 제외하고 기사 본문만 분석해 코딩했다. 기사 프레임의 경우, 형식적 프레임과 내용적 프레임으로 나뉘었으며, 기사당 형식적 프레임과 내용적 프레임 각 하나씩만 선정해 코딩했다. 실제로 범죄 보도 프레임 분석 시 여러 개의 프레임을 중복하여 코딩한 연구도 있으나(Fairbairn & Dawson, 2013),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신문 기사들의 길이가 아주 길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코더들이 기사를 한 번 이상 읽고 기사별로 가장 중심이 되는 프레임 하나만을 코딩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기사 길이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현저히 짧다(고영철, 2015; 박재영, 2004; 이재경, 2006). 한국과 미국, 일본 신문을 비교 분석한 박재영(2004)의 연구에 따르면, 종합 1면의 경우 뉴욕타임스는 평균 3,891자, 요미우리신문은 805자, 조선일보는 723자였다. 짧은 길이의 기사에는 많은 취재원과 복합적인 관점이 담기기 힘들기 때문에, 기사당 형식적 프레임과 내용적 프레임 각 하나씩만 선정했다.

형식적 프레임은 1) 일화적 프레임과 2) 주제적 프레임으로 분류하고, 두 가지 프레임이 혼재된 경우는 3) 혼재된 프레임으로 분류했다.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가 일어난 사실에만 집중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일화적 프레임에 해당한다. 주제적 프레임은 사건의 원인과 해결책, 사회적 시스템 마련 등 구조적 문제까지 다각도로 조명하는 것으로, 관련 범죄의 통계나 유사 사례, 그간의 대응을 함께 소개하는 프레임이다.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도, 원인 분석, 해결책 강구 등 구조적 내용까지 함께 다룬 경우는 혼재된 프레임으로 분석했다.

내용적 프레임은 1) 피해자 책임 프레임, 2) 피해자 외 책임 프레임, 3) 인간적 흥미 프레임, 4) 경계 만들기 프레임으로 분류했다. 피해자 책임 프레임은 벌록과 큐버트(Bullock & Cubert, 2002)의 정의를 차용했는데, 피해자의 과거 남성 관계나 평소 행실에 집중하거나, '내 연녀' '유홍업소 종업원' 등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이별을 통보해서' '바람을 피워서' '고백을 받아주지 않아서' '(피해자가) 술/마약에 취해' 등의 표현을 포함해 범죄의 빌미를 피해자가 준 것처럼 상술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피해자 외 책임 프레임은 가해자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거나, 이전에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비슷한 전력으로 접근 금지 등 법적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프레임이다. 또한, 해당 사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며 관련 통계를 제시하거나 정부와 제도, 공권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경우 등

도 이에 해당한다.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여성 대상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에 집중하는 프레임이다. 보도 내에 성적 표현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범죄를 묘사하거나(‘알몸으로 달려 나와,’ ‘칼로 얼굴을 여러 차례 찌른 뒤,’ ‘검은 봉지에 토막시신을 나눠 작은 손가방에 들고,’ ‘근육이완제를 세 차례 투여한 뒤’), 자극적인 수법을 부각하는 경우(‘담뱃불로 얼굴을 지지고,’ ‘망치로 둔부를 짓이겨’)가 해당한다. 아울러, 특별한 직업군을 강조하면서(대학교수, 의사, 승려 등) 범죄 내용을 상세 묘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정에서 혹은 범인 호송 시 발생하는 극적 상황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보도하는 경우, 국민 청원에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보도해 감정적 자극을 주는 경우도 선정성 프레임에 포함된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사는 곳, 직장명 등)나 그러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거나, 범죄의 주요 죄목과 관련 없는 개인 신상정보(외모, 학교 성적 등)를 상세하게 보도해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경우,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유명인임을 언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피해자인 여성을 보는 시선과 피해자를 대하는 관점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며, 경계 만들기 프레임을 추가했다. 경계 만들기 프레임은 범죄 사건 자체가 일반 대중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특수하거나 이례적인 상황이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 범죄가 일회적이고 예외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게 하는 프레임이다. 가해자를 지칭할 때 ‘악마’ ‘사이코패스’ 등의 표현을 강조해 가해자가 상당히 예외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오랜 간병이나 지병(우울증, 조현병,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특수 병력을 강조하는 경우, 노숙자, 소수민족, 이주 노동자 등 일부 소외 계층의 이탈 정도로 보도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를 특수 상황에 처해 있는 가엾은 존재로 보거나(‘어렸을 때부터 학대받은,’ ‘고아로 자라서 등),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보기보다 상당히 무기력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만 보도하는 경우, 특히, 피해자가 이주 여성임을 거듭 강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3) 분석 절차와 코더 간 신뢰도

코딩에는 미디어학 전공 대학원생 2명이 참여했다. 여러 차례의 연습코딩 과정을 통해 발견된 코더 간 불일치와 프레임 간 구별 기준의 모호함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코드북에 재차 반영했다. 그 후 전체 표본의 약 10%에 해당하는 기사를 무작위 추출해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했다. 범죄 종류,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를 표시하는 단순 코딩은 모두 일치했다. 크리펜도르프의 알파(Krippendorff's Alpha)로 알아본 형식 프레임과 내용 프레임의 코더 간 신뢰도는 각각 .89,

.87이었다. 일반적으로 .80이면 신뢰도가 좋은 편으로, 대부분의 분석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윤영민, 2019; Krippendorff, 2013; Neuendorf, 2002). 코더 간 신뢰도가 확보된 후 두 코더는 687개의 기사를 나눠 코딩했다.

## 5. 연구 결과

### 1) 언론에 보도되는 여성 대상 범죄 종류 및 가해자-피해자 관계

〈연구문제 1〉은 언론에 보도된 여성 대상 범죄의 종류와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살펴봤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여성 대상 범죄 중 살인사건이 61.9%로 가장 많이 보도되었고, 성폭력(24.2%)이 두 번째로 많았다. 전체 범죄 중 성범죄를 포함하는 경우는 40.6%였다. 가해자-피해자 관계는 타인(29.0%), 친족(27.5%), 지인(21.4%), 애인(20.4%) 순으로 많았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절반 정도가 애인이나 친족, 친구 등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지인까지 포함하면 약 70%의 범죄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결과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통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Table 1. 2003-2022 Crime Types and Perpetrator-Victim Relationships in Reports of Crimes against Women

구분		합 (n=687)
범죄 종류	살인 <sup>1</sup>	61.9% (425)
	성폭력 <sup>2</sup>	24.2% (166)
	폭행	13.7% (94)
	강도	0.3% (2)
총계		100.0% (687)
성범죄 포함 여부	포함	40.6% (279)
	포함하지 않음	57.6% (396)
	알 수 없음	1.7% (12)
총계		100.0% (687)
가해자-피해자 관계	타인	29.0% (199)
	친족	27.5% (189)
	지인 <sup>3</sup>	21.4% (147)
	애인	20.4% (140)
	친구	1.0% (7)
	기타	0.7% (5)
	총계	100.0% (687)

1. 두 개 이상 범죄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가장 강력한 범죄 선택(폭행(강도)(성폭력(살인))

2. 전체 살인 중 102건은 성폭력 포함

3. 강간, 성폭력 등 강력범죄 포함. 성추행은 제외

4. 이웃, 업무 관계인, 단골손님, 애인의 가족과 친구, 친족의 친구 포함

## 2) 2014년 이후 여성 대상 범죄 보도 프레임 변화

〈연구문제 2〉는 2014년 이후, 국내 언론의 여성 대상 범죄 보도의 형식 프레임 변화를 분석했다. 교차분석 결과(〈Table 2〉 참조), 주제적 프레임이 증가했고 일화적 프레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이전에 전체 형식 프레임 중 94.3%를 차지했던 일화적 프레임이 87.2%로 줄었으며, 4.1%였던 주제적 프레임이 9.7%로 증가했다. 비록 전체 형식 프레임 중에서 여전히 일화적 프레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는 하나, 주제적 프레임이 이전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2014년 이후 형식 프레임에 변화가 있음이 확인됐다. 〈Figure 1〉에서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형식 프레임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2014년 이후 주제적 프레임이 증가하고 일화적 프레임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주제적 프레임은 하락하는 추세를, 일화적 프레임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Table 2. Chi-square Test on Framing Changes in Reporting on Crimes against Women Before and After 2014

프레임		2003~2013	2014~2022	$\chi^2$	<i>p</i>
형식프레임	일화적 프레임	94.3% (279)	87.2% (341)	9.650	.008
	주제적 프레임	4.1% (12)	9.7% (38)		
	혼재된 프레임	1.7% (5)	3.1% (12)		
	총계	100.0% (296)	100.0% (391)		
내용프레임	피해자 책임 프레임	1.4% (4)	2.0% (8)	27.883	.000
	피해자 외 책임 프레임	46.3% (137)	50.4% (197)		
	인간적 흥미 프레임	40.2% (119)	23.8% (93)		
	경계 만들기 프레임	12.2% (36)	23.8% (93)		
	총계	100.0% (296)	100.0%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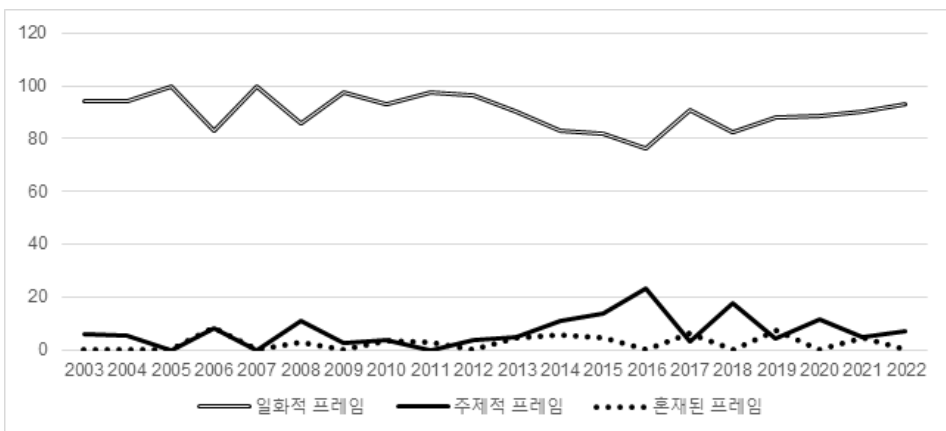


Figure 1. 2003-2022 Changes in format frames over the years in reporting on crimes against women

〈연구문제 3〉은 2014년 이후 국내 언론의 여성 대상 범죄 보도의 내용 프레임 변화를 분석했다. 교차분석 결과(〈Table 2〉 참조), 전체 내용 프레임 중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40.2%에서 23.8%로 상당히 감소했고, 피해자 외 책임 프레임은 46.3%에서 50.4%로 증가했다. 반면, 경계 만들기 프레임은 12.2%에서 23.8%로 오히려 증가했고, 피해자 책임 프레임도 소폭 증가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주제 프레임의 변화 추이는 〈Figure 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 대폭 줄어들면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감소하는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상당히 예외적이고 특수하게 묘사함으로써 일반 대중과는 거리를 두는 경계 만들기 프레임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돌리는 피해자 책임 프레임도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4개 언론사별 보도 프레임 변화를 살펴봤다. 형식 프레임 분석 결과(〈Table 3〉 참조) 모든 언론사에서 2014년 이후 주제 프레임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는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언론사는 조선일보( $\chi^2=6.246, p=.044$ ) 뿐이었다. 조선일보는 주제적 프레임이 3.6%에서 12.0%로 약 3배 증가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한겨레의 경우도 주제적 프레임이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의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내용 프레임의 경우(〈Table 4〉 참조) 4개 언론사 모두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 감소하고 경계 만들기 프레임이 증가했다. 다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언론사는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뿐이었다. 4개 언론사 간 프레임 변화 경향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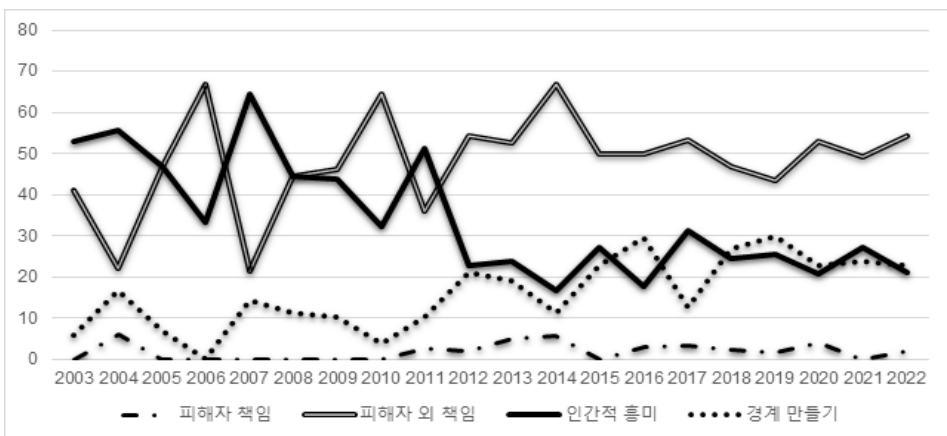


Figure 2. 2003-2022 Changes in content frames over the years in reporting on crimes against women

Table 3. Chi-square Test on Format Framing Changes in Reporting on Crimes against Women by Newspapers

구분	조선일보 (176)		동아일보 (153)		한겨레 (168)		경향신문 (190)	
	2003~13 (84)	2014~22 (92)	2003~13 (64)	2014~22 (89)	2003~13 (70)	2014~22 (98)	2003~13 (78)	2014~22 (112)
일화적 프레임	96.4% (81)	85.9% (79)	95.3% (61)	95.5% (85)	90.0% (63)	75.5% (74)	94.9% (74)	92.0% (103)
주제적 프레임	3.6% (3)	12.0% (11)	1.6% (1)	3.4% (3)	8.6% (6)	18.4% (18)	2.6% (2)	5.4% (6)
혼재된 프레임	0	2.2% (2)	3.1% (2)	1.1% (1)	1.4% (1)	6.1% (6)	2.6% (2)	2.7% (3)
$\chi^2(p)$	6.246 (.044)		1.226 (.542)		5.953 (.051)		.896 (.639)	

Table 4. Chi-square Test on Content Framing Changes in Reporting on Crimes against Women by Newspapers

구분	조선일보 (176)		동아일보 (153)		한겨레 (168)		경향신문 (190)	
	2003~13 (84)	2014~22 (92)	2003~13 (64)	2014~22 (89)	2003~13 (70)	2014~22 (98)	2003~13 (78)	2014~22 (112)
피해자 책임 프레임	2.4% (2)	2.2% (2)	3.1% (2)	2.2% (2)	0% (0)	2.0% (2)	0% (0)	1.8% (2)
피해자 외 책임 프레임	46.4% (39)	50.0% (46)	42.2% (27)	48.3% (43)	50.0% (35)	57.1% (56)	46.2% (36)	46.4% (52)
인간적 흥미 프레임	42.9% (36)	21.7% (20)	37.5% (24)	29.2% (26)	38.6% (27)	26.5% (26)	41.0% (32)	18.8% (21)
경계 만들기 프레임	8.3% (7)	26.1% (24)	17.2% (11)	20.2% (18)	11.4% (8)	14.3% (14)	12.8% (10)	33.0% (37)
$\chi^2(p)$	14.136 (.003)		1.379 (.711)		3.944 (.268)		17.168 (.001)	

## 6.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년간 여성 대상 범죄 보도의 프레임을 살펴보고 2014년 이전과 이후 프레임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도되는 여성 대상 범죄 종류는 살인이 가장 많았고, 성폭력, 폭행이 그 뒤를 이었다. 언론에 보도되는 여성 대상 범죄 가해자는 타인, 친족, 지인, 애인 순으로 많았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절반 정도가 애인이나 친족, 친구(총 48.9%) 등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4년 이후 보도 프레임에는 일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했는데, 사건을 일화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 원인과 해결책, 필요시 관련 통계 등을 언급하는 주제

적 프레임이 증가했고, 내용적 프레임에서는 선정적인 표현이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방식의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감소하고 피해자 외 책임 프레임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제적 프레임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으며, 내용적 프레임 중 인간적 흥미 프레임의 감소 경향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자 책임 프레임과 범 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이례적으로 구분하는 경계 만들기 프레임은 오히려 증가했다. 추가적으로 살펴본 언론사별 시기에 따른 프레임 변화의 경우, 4개 언론사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범 죄 보도에 있어 언론사별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김훈순, 2014; 박용규, 2001; 유선영, 1996)와 일치하는 결과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여성 대상 범죄 관련 통계의 필요성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여성 대상 범죄 종류와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살펴봤는데, 범죄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의 실제 범죄 발생률과는 차이가 있다.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범죄는 살인이지만, 경찰청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강력범죄는 성폭력, 가장 적게 발생한 범죄가 살인이다. 이는 강력한 범죄가 실제 현실보다 언론에서 훨씬 더 많이 다뤄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Dowler et al., 2006; Hernández, 2017; Sutherland et al., 2019). 언론에 보도되는 여성 대상 범죄 가해자의 경우 현재 여성 대상 범죄의 가해자-피해자 관계만을 따로 분류한 국가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 통계와 언론에 보도된 범죄의 가해자-피해자 관계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국외 선행연구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국가 자료에서 밝혀진 대로 여성 대상 성범죄나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가족과 애인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통계와 본 연구의 경향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이수정·김혜진, 2019; 장미혜 외, 2019). 기초 통계의 부재로 여성 대상 범죄가 실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조주는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의 지적대로 “여성 대상 폭력 통계가 개선되면,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해 초동 대응 전략 등이 더 세심하게 수립될 수 있을 것”(박다해, 2021)이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범죄통계시스템 고도화 작업 연구사업은 2023년말 3차년도 사업을 끝낸 상태다.

둘째로,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의 경우 그 원인, 가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안전망 등의 문제를 면밀히 따져 사회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는 역할을 언론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사건의 원인과 해결책, 사회적 책임이나 안전망 구축 등의 필요성을 다루는 주제적 프레임이 증가했다. 일반 대중들이 보도를 통해 해당 범죄의 원인과 문제점(사회적 안전망 부족, 제도적·구조적 문제의 가능성)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특히, 여성 대상 범죄 보도에 중요하다. 뉴스 텍스트는 프레이밍을 통해 어떤 특정한 측면을 ‘현저하게(salient)’ 만드는 기능을 한다(Entman, 1993).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보도와 적절한 정보의 제공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Carll, 2003). 다만, 연도별 형식 프레임 추이(〈Figure 1〉 참조)에서 나타났듯이 꾸준히 증가하던 주제적 프레임이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줄어들고, 일화적 프레임이 증가하는 추세는 우려스럽다. 언론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학계의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유엔(United Nations)은 여성 대상 폭행, 성폭력, 살인 등을 포함한 여성 폭력을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인권 침해 행위이자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으며, 1993년 여성 폭력 방지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채택하고, 매년 11월 25일을 세계 여성 폭력 방지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여성 대상 범죄 관련 사회적 책임이나 안전망 구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정책적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변화는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페미사이드의 심각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제도적 기반을 잘 갖춘 스페인이 어떻게 페미사이드를 개별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한 연구(Comas-d’Argemir, 2015)에 따르면, 스페인 시민사회와 학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반 대중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언론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스페인의 공영 방송을 중심으로 한 주요 언론은 여성 대상 범죄를 뉴스에서 더 자주,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고, 이는 대중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멕시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멕시코의 언론은 1993년부터 치와와주 시우닷 후아레스에서 발생한 일련의 여성 살해 사건을 가시화하고, 페미사이드 개념의 정립 및 관련 입법화라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박수경, 2022). 멕시코 정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던 사건에 대한 분석 기사를 여러 해에 걸쳐 꾸준히 보도한 것인데, 이러한 노력은 해당 사건 관련 유일한 통계 자료이자 기록으로서 기능했다. 국내의 경우도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이 페미사이드 판결문과 페미사이드 사건 총 500건을 분석해 기획연재를 하고, 특별 웹페이지(stop-femicide.hani.co.kr)를 제작해 ‘2022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에서 수상한 사례가 있으며(황예랑, 2022), ‘n번방 사건’으로 통칭되는 디지털 성폭력 및 성착취에 대한 기획 보도가 실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 및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김경희, 2020). 범죄 보도는 일반 대중의 범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며, 사회 전반적인 법적 도덕적 규범 형성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이 존재한다(이승선·김연식, 2008). 언론은 여성 대상 범죄의 원인과 해결책, 사회적 책임이나 안전망 구축 등의 필요



성을 다각도로 다룸으로써 인식 제고 및 관련 정책 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언론인의 인식 개선과 젠더 감수성 제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여성 대상 범죄의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대폭 감소했으나,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경계 만들기 프레임과 피해자 책임 프레임이 2014년 이후에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여서 우려스럽다. 경계 만들기 프레임은 범죄 사건 자체가 일반 대중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특수하거나 이례적인 상황이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 범죄가 일회적이고 예외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게 하는 프레임이다. 가해자를 ‘악마’ ‘사이코패스’로 묘사하거나, 노숙자, 이주 노동자가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강조하는 경우, 피해자를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로만 비추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프레임을 ‘독립된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 ‘가해자/피해자 평범하지 않게 보기’ ‘가해자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평범한 사건으로 일반화’ ‘가해자/피해자는 (우리)와 다르다는 프레임’ ‘또 하나의 살인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프레임으로 지적하고 있다(Bullock & Cubert, 2002; Gillespie et al., 2013; Hernández, 2018; Lee & Wong, 2019). 아울러 피해자 책임 프레임은 범죄 발생의 원인을 오히려 피해자에게서 찾는 프레임으로 여성 대상 범죄 보도에서 가장 많이 비판받는 프레임이다(Alat, 2006; Bullock & Cubert, 2002; Chagnon, 2018; Fairbairn & Dawson, 2013; Richards et al., 2011).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지적하거나, 범죄의 빌미를 피해자가 준 것인 양 보도하는 경우, 학대하는 가해자를 떠나지 못하는 많은 구조적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한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이 두 프레임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선정적 표현, 개인정보 유출 등 대중의 손가락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 감소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일반적인 사람이나 상황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프레임(피해자 책임 프레임, 경계 만들기 프레임)도 지양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언론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언론인의 인식 개선과 젠더 감수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호주에서 여성 폭력 기사가 점차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현상에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5개 언론사의 기자 21명을 인터뷰한 연구(Morgan & Simons, 2018)는 특정 여성 폭력 사건에 영향을 받은 일부 문제의식이 있는 언론사와 기자들(특히, 에디터급의 고위 기자들)의 노력으로 여성 대상 범죄 보도 방식의 변화가 가능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헤럴드 선(The Herald Sun)>이 신문 1면에 경찰치안총감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의 사진과 함께 ‘여성 대상 폭력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taking a stand)’는 내용을 실은 ‘테이크

어 스탠드(Take a Stand) 캠페인이 대중의 인식을 높인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는데,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문제 의식을 갖고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에디터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언론이 젠더 관련 이슈나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로 빈번히 지적되는 것은 언론사 편집국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데스크급 언론인들의 젠더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다(김경희, 2020; 김희원, 2021). 국내 여성 기자를 심층 인터뷰해 미투 운동 보도 당시 한국 저널리즘 관행과 언론사 조직문화를 분석한 김세은과 홍남희(2019)도 언론사 조직 내 젠더 감수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성 상급자 비율 증가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언론인 교육이 절실하다. 2022년 7월 발생한 인하대 성폭력·사망 사건 당시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의 “반성하며 다시 쓴, ‘인하대 성폭력·사망 사건’ 기사”(남형도, 2022)가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12년 차 기자인 그는 “부끄럽게도 저 역시 이런 보도 기준(성폭력 사건 보도 기준)을 이리 자세히 본 게 처음”이었다고 기사에서 고백하고 있다. 실제 사건기자들은 보도 준칙 제정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과 교육이 수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양영유·이완수, 2020). 정교하게 만들어진 보도 준칙이 선언적인 문서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다양한 직급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보통 취재기자에서 에디터로 승진할 때 조직 관리와 관련된 내용 외에는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한다(김창숙·최지향, 2021). 현장에서 직접 체득하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언론인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소양과 책무를 포함하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호주에서는 기자 교육 프로그램에 가정 폭력에 대한 기본 교육과 관련 사건을 실제 보도 할 때 주의할 사항 등을 포함한 사례가 있는데, 교육받은 기자와 그렇지 않은 기자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교육을 받은 기자가 선정적인 표현을 적게 사용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의 정보를 추가한다거나 경찰 외에 여성 폭력 관련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의 기사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Eastal, Blatchford, Holland, & Sutherland, 2022).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첫째,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년간의 여성 대상 범죄 보도의 프레임의 양적으로 분석해, 프레임 변화의 흐름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일부 성범죄 사건이나 한정된 범죄 유형이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보도 전반을 다뤘다는 점,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던 국내 선행연구에 더해 양적 통계 분석으로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핀 점이 특히 의미가 크다.

둘째, 여성 대상 범죄 보도에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나, 주제적 프레임이

증가하고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미국, 스웨덴 등 성평등 지수가 높고, 관련 인식이 높은 국가에서조차도 여성 대상 범죄는 여전히 일화적이고 파편적으로 다루지는 경우가 많다(Karlsson, Lila, Gracia, & Wemrell, 2021; Lindsay-Brisbin, DePrince, & Welton-Mitchell, 2014). 선행연구들은 공통으로 언론이 주제적 프레임을 통해 여성 대상 범죄에 내재하여 있는 사회적·구조적 맥락을 지적해, 사회적 제도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바라보게 하는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많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경우, 괴롭힘이나 스토킹, 정서적 학대를 동반하기 때문에 관련 기사 하단에 그런 상황에 부딪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간단하게 추가하는 것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범죄가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개입을 통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Karlsson et al., 2021).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여성 대상 범죄에 한정되긴 하나 현재 국가 통계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대부분 친밀한 관계라는 점을 밝혔다. 이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경찰청은 범죄 관련 통계를 비교적 상세히 제공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도 남녀 피해자 전체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통계자료의 구축이 필수적이다(이수정·김혜진, 2019). 가해자가 타인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일반 범죄와 달리, 여성 대상 범죄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구체적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여성 대상 범죄 관련 이해를 높여야 예방책을 포함한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주요 일간지 기사로만 한정되었다는 점, 언론 보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한국 사회 내 젠더 이슈의 변화 흐름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 내용분석이라는 방법론적 한계로 조금 더 정교한 통계적 방법을 통해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현상 기술에만 그쳤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일반 대중이 뉴스와 시사 정보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인 TV 뉴스 및 인터넷 뉴스까지도 포괄하여 분석함으로써 여성 대상 범죄 보도 프레임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여성 대상 범죄’로 설정해 성범죄만으로 국한할 경우 포함되지 않는 대부분의 스토킹 살해 사건이나, 살인으로 이어진 테이트 폭력 혹은 가정 폭력 사건 등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봤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성폭력 보도 세부 권

고 기준 이후 성폭력 범죄 보도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인터뷰나 설문 등을 통해 보도 준칙이 이미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다각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Alat, Z. (2006). News coverage of violence against women. *Feminist Media Studies*, 6(3), 295-314.
- Berns, N. (2001). Degendering the problem and gendering the blame: Political discourse on women and violence. *Gender & Society*, 15, 262-281.
- Bjornstrom, E. S., Kaufman, R. L., Peterson, R. D., & Slater, M. D. (2010). Race and ethnic representations of lawbreakers and victims in crime news: A national study of television coverage. *Social Problems*, 57, 74-91.
- Bullock, C., & Cubert, J. (2002). Coverage of domestic violence fatalities by newspapers in Washington Stat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 475-499.
- Carll, E. K. (2003). News portrayals of violence and women: Implication for public poli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12), 1601-1610.
- Ceatano, R., Cunradi, C. B., Schafer, J., & Clark, C. L. (2000).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drinking patterns among white, black, and hispanic couples in the U.S. *Journal of Substance Abuse*, 11, 123-138.
- Chagnon, N. (2018). It's a problem of culture (for them): Orientalist framing in news on violence against women. *Race and Justice*, 10(4), 480-500.
- Choi, H.-J. (2010a). A study on crime news about women. *Gender and Culture*, 2(1), 39-58. [최현주 (2010a). 여성 대상 범죄보도에 대한 프레임 연구. <젠더와 문화>, 2권 1호, 39-58.]
- Choi, H.-J. (2010b). Gender discourse of psychopathic-crime news: An analysis of TV news on 'KangHosoon serial sex crim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21(1), 169-190. [최현주 (2010b). 사이코패스 범죄의 젠더 담론: 강호순 사건에 대한 방송 3사(KBS, MBC, SBS)의 뉴스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권 1호, 169-190.]
- Choi, H. M. (1991). Study on effects of crime report to readers : Concerning sensationalism of express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cause of crime.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최현미 (1991). 범죄기사가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Choi, Y. (2018). One hundred days of #MeToo coverage...Has the press evolved? *Kwanhun Journal*, 147, 51-59. [최이숙 (2018). 백일 넘긴 미투 운동 보도...우리 언론 성장했다? <관훈저널>, 147호, 51-59.]
- Choi, Y., Jang, E., & Kim, S.-E. (2020). Have Korean newspapers made an improvement in treating gender issues after #MeToo?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104, 122-163. [최이숙·장은

미·김세은 (2020). ‘미투 운동(#MeToo)’ 이후 젠더 이슈 보도의 성과와 한계. <한국언론정보학보>, 104호, 122-163.]

Comas-d'Argemir, D. (2015). News of partner femicides: The shift from private issue to public problem.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30(2), 121-136.

De Vreese, H., Peter, J., & Semetko, H. A. (2001). Framing politics at the launch of the Euro: A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frames in the news. *Political Communication*, 18(2), 107-122.

Dowler, K. (2004). Comparing American and Canadian local television crime stories: A content analysis.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46(5), 573-596.

Dowler, K., Fleming, T., & Muzzatti, S. L. (2006). Constructing crime: Media, crime and popular culture.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48(6), 837-850.

Eastal, P., Blatchford, A., Holland, K., & Sutherland, G. (2021). Teaching journalists about violence against women best reportage practices: An Australian case study. *Journalism Practice*, 16(10), 2185-2201.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3), 51-58.

Fairbairn, J., & Dawson, M. (2013). Canadian news coverage of intimate partner homicide: Analyzing changes over time. *Feminist Criminology*, 8(3), 147-176.

Gillespie, L. K., Richards, T. N., Givens, E. M., & Smith, M. D. (2013). Framing deadly domestic violence: Why the media's spin matters in newspaper coverage of femicide. *Violence Against Women*, 19(2), 222-245.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ius, C., & Lalli, P. (2014). "I loved her so much, but I killed her". Romantic love as a representational frame for intimate partner femicide in three Italian newspapers.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14), 53-75.

Han, J., Sun, S., & Lu, Y. (2017). Framing climate change: A content analysis of Chinese mainstream newspapers from 2005 to 2015. *Journal of Communication*, 11, 2889-2911.

Harris, C. T., Gruenewald, J., & Tuttle, C. R. (2021). Immigration and crime in the local news: Exploring the macrolevel covariates of coverage and framing. *The Sociological Quarterly*, 62(4), 788-812.

Hernández, M. (2018). "Killed out of love": A frame analysis of domestic violence coverage in Hong Kong. *Violence Against Women*, 24(12), 1454-1473.

- Hong, J. (2009). The constitution of meaning of sexual violence frame analysis of JoongAng Daily Newspaper and Hankyoreh.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3(5), 458-498. [홍지아 (2009). 신문기사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성폭력의 의미구성: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권 5호, 458-498.]
- Hong, J. (2017). The study of the media's method of reenacting gender based violence.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83, 186-218. [홍지아 (2017). 젠더화된 폭력에 대한 뉴스 보도. <한국언론정보학보>, 83호, 186-218.]
- Hong, S., & Lee, W. (2020). A study on the reproduction and frame analysis of crime news on the news portal Naver.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20(2), 256-293. [홍성철·이완수 (2020). 뉴스 포털 <네이버>에 게시된 범죄사건 재현과 프레임 분석. <언론과학연구>, 20권 2호, 256-293.]
- Hwang, Y. (2022. November 20). *Hankyoreh 21 Femicide Report Wins '2022 Data Journalism Award'*. The Hankyoreh. Retrieved 7/30/23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68038.html> [황예랑 (2022). 한겨레21 페미사이드 보도, '2022 데이터저널리즘 어워드' 수상. 한겨레.]
- Impe, A.-M. (2019). *Reporting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 handbook for journalists*. Paris: UNESCO. Retrieved 7/30/23 from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1524>
- Institute of Justice. (2021). *2021 Crime White Paper*. Jincheon: Institute of Justice. [법무연수원 (2021). <2021 범죄백서>. 진천: 법무연수원]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2014). *IFJ Guidelines for reporting on violence against women*. Retrieved 7/30/23 from [https://www.ifj.org/fileadmin/user\\_upload/IFJ\\_Guidelines\\_for\\_Reporting\\_on\\_Violence\\_Against\\_Women\\_EN.pdf](https://www.ifj.org/fileadmin/user_upload/IFJ_Guidelines_for_Reporting_on_Violence_Against_Women_EN.pdf)
- Iyengar, S. (1994).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ng, M., Lee, M., Joo, J., Ko, H., Lee, Y., & Lee, S. (2019).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statistical system on violence against women*.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장미혜·이미정·주재선·고현승·이인선·이시림 (2019). <여성폭력 통계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Jeon, M. G. (2015). A study on the media reports on crime and protection of victims inform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6(4), 795-807. [전명길 (2015).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와 피해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인문과 사회>, 6권 4호, 795-807.]
- Jeong, C.-W. (2020, August 26). *47 million won in damages for defamation of Chosunilbo for 8 years*. The

- Media Today, Retrieved 11/20/23 from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15>. [정철운 (2020a). 조선일보 명예훼손 손해배상액 8년간 4700만원. 미디어오늘.]
- Jeong, C.-W. (2020, October 19). *What is problematic with applying punitive damages on press?* The Media Today, Retrieved 11/20/23 from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71>. [정철운 (2020b).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무엇이 문제인가? 미디어오늘.]
- Jeong, Y. (2012). Media that treat sex crimes as 'stories' to lose credibility: Three issues to look for in sex crime reporting. *Newspaper & Broadcasting*, 503, 24-27. [정용국 (2012). 성범죄를 ‘이야깃거리’로 취급하는 언론, 시나브로 신뢰 잃는다: 성범죄보도에서 점검해 볼 세 가지 이슈. <신문과 방송>, 503호, 24-27.]
- Kang, D. W. (2015). Review of the legislative system etc. for the prevention of secondary damages of crime victims due to media reports and their improvement. *Hanyang Journal of Law*, 32(1), 23-54. [강동욱 (2015). 언론보도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 등의 검토와 그 개선방안. <법학논총>, 32권 1호, 23-54.]
- Karlsson, N., Lila, M., Gracia, E., & Wemrell, M. (2021). Representation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women in Swedish news media: A discourse analysis. *Violence Against Women*, 27(10), 1499-1524.
- Kim, C., & Choi, J. (2021). Factors behind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problematic fact-checking practices in Korean newspapers. *Media and Society*, 26(2), 5-57. [김창숙·최지향 (2021). 왜 한국 신문의 문제적 사실확인 관행은 고쳐지지 않는가? 사회부 취재기자와 에디터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구조적 원인 분석. <언론과 사회>, 29권 2호, 5-57.]
- Kim, H. (2014, April 10). The harmful impact of sexual assault coverage on secondary victimisation, Journalistic reflection urgently needed. *Journalist Association of Korea*. Retrieved 11/20/23 from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3310>. [김희영 (2014). 성폭행 보도 2차 피해, 언론계 반성 시급. 한국기자협회.]
- Kim, H.-S. (2004). Gender frames of Korean newspapers: Women in crime new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35, 63-91. [김훈순 (2004). 한국 언론의 젠더 프레임: 범죄뉴스와 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35호, 63-91.]
- Kim, H.-S. (2016). The prevalence and causes of gory, grotesque, and sensationalized crime coverage. *Kwanhun Journal*, 138, 63-39. [김희승 (2016). 잔혹, 엽기, 선정성에 노출된 범죄보도 실태와 원인. <관훈저널>, 138호, 63-69.]
- Kim, H. W. (2021). Principles for media that can't keep up with gender issues. *Kwanhun Journal*, 160,



- 163-170. [김희원 (2021). 젠더 이슈 못 따라잡는 언론을 위한 원칙들. <관훈저널>, 160호, 163-170.]
- Kim, J. M., & Hwang, Y. S. (2021). Analysis of time series data related to claims for damages of the press report.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7(1), 67-104. [김정민·황용석 (2021).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시계열 데이터 분석: 2005-2019년 언론조정신청 및 언론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7권 1호, 67-104.]
- Kim, K. (2020). The role of the media in reporting sexual exploitation cases. *Kwanhun Journal*, 155, 81-87. [김경희 (2020). 성착취 사건 보도로 본 언론의 역할. <관훈저널>, 155호 81-87.]
- Kim, O. (2004). Crime reporting and media ethic : A review of media reports on the adulterated dumpling case and Yu Yong-chol's serial murders in 2004.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3(1), 175-224. [김옥조 (2004). 범죄보도와 윤리: 만두소 사건과 연쇄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3권 1호, 175-224.]
- Kim, S. (2019). Critical discourse analysis for the issue of gender conflict in media reports.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5(1), 95-139. [김수아 (2019). 미투 운동 이후 한국 신문에 나타난 성별 갈등 보도 분석. <미디어와 인격권>, 5권 1호, 95-139.]
- Kim, S. (2021). Reporting on online communities that foster conflict: We need reports on 'real world issues' that aren't online. *Newspaper & Broadcasting*, 609, 13-16. [김수아 (2021). 갈등 키우는 온라인 커뮤니티 증계 보도 온라인엔 없는 '현실의 문제' 보도할 때. <신문과 방송>, 609호, 13-16.]
- Kim, S. (2022). Critique of media coverage and suggestions for reporting on sexual assault: No stigmatization and oppression of victims by media coverage. *Newspaper & Broadcasting*, 622, 30-33. [김수아 (2022). 보도 비평 및 성폭력 사건 보도 제언: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억압 언론 보도가 기여 해선 안돼. <신문과 방송>, 622호, 30-33.]
- Kim, S.-E. (2018). How does the news cover women? *Broadcasting Reporters*, 41, 16-19. [김세은 (2018). 뉴스는 여성을 어떻게 다루는가? <방송기자>, 41권, 16-19.]
- Kim, S.-E., & Hong, N. (2019). News media and the #Metoo movement: Problematizing the practices of Korean journalism organizations. *Media, Gender & Culture*, 34(1), 39-88. [김세은·홍남희, (2019). 미투 운동(#Metoo) 보도를 통해 본 한국 저널리즘 관행과 언론사 조직 문화: 여성기자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4권 1호, 39-88.]
- Kim, S.-N. (2002). An analysis of prostitution related TV news fram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6(2), 41-76. [김선남 (2002). 매매춘 관련 TV뉴스의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6권 2호, 41-76.]

- Ko, Y.-C. (2015). A comparison of the way of composing news contents on the front pages of local newspapers that are being published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cus on the types of news articles, the forms of news writing, photos and infographic.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0(1), 35-49. [고영철 (2015). 한·미 지역일간지 1면 기사 콘텐츠의 구성방식 비교 분석: 기사의 유형, 구조, 내용 그리고 사진 및 인포그래픽 제시방법 등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권 1호, 35-49.]
- Korea Press Foundation (2022). *Media users in Korea 2022*.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2022 언론수용자 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Krippendorff, K. (2013)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Los Angeles: Sage.
- Kwon, I., & Lee, H. (2011). Fear of sexual violence and social control: Focusing on the media's treatment of child sexual violence cases. *The Journal of Asian Women*, 50(2), 85-118. [권인숙·이화연 (2011).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언론의 아동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0권 2호, 85-118.]
- Lee, C., & Wong, J. S. (2020). 99 reasons and he ain't one: A content analysis of domestic homicide news coverage. *Violence Against Women*, 26(2), 213-232.
- Lee, C.-H. (2006).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gainst mass media. *The Police Science Journal*, 1(1), 101-118. [이천현 (2006). 언론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신원공개 실태 및 방지대책. <경찰학논총>, 1권 1호, 101-118.]
- Lee, C. H. (2012). A study on characteristics, sensationalism and reality representation of CCTV video on TV news. *Broadcasting & Communication*, 13(4), 5-43. [이창훈 (2012). CCTV영상의 보도 특성과 선정성, 현실 재현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3권 4호, 5-43.]
- Lee, E. B., Sohn, M. J., & Yu, H. S. (2014). A comparative study of sexual crime coverages on Korean and American daily newspapers. *Media & Performing Arts*, 9(1), 97-132. [이은비·손민정·유홍식 (2014). 한국과 미국 일간지의 성폭력 범죄보도에 대한 연구.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9권 1호, 97-132.]
- Lee, G., & Yoon, S. Y. (2017). The occurrence trend of "heinous crime in the media" and the measure of overcoming the overestimation. *The Police Science Journal*, 12(1), 165-189. [이기수·윤성연 (2017). 언론보도상 '잔혹 범죄'의 발생 추이와 과대추정현상 극복 방안. <경찰학논총>, 12권 1호, 165-189.]
- Lee, J. (2004). A study of crime reporting in the Korean media: Analyzing the case of Yoo, a serial murder suspect. Proceedings of the 2004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Journalism & Communication Association. 61-65. [이진로 (2004). <한국 언론의 범죄보도에 관한 연구: 연쇄살인 범죄 용의자 유

아무개 사례 분석>,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1-65.]

- Lee, J.-K. (2006). A comparison of the presidential news coverage: The Chosun Ilbo and the New York Times. *Media and Society*, 14(4), 37-69. [이재경 (2006). 한·미 신문의 대통령 취재관행 비교: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 <언론과 사회>, 14권 4호, 37-69.]
- Lee, J.-Y. (2015). A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of crime coverage.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24(3), 207-237. [이재영 (2015). 범죄보도에 관한 양적 내용분석: 살인, 강도, 강간 범죄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권 3호, 207-237.]
- Lee, M. (2013, August 30). *Mother of the 'Naju case' victim says "The press was worse than Ko, the perpetrator."* The Hankyong Kizmom, Retrieved 11/20/23 from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3083033660> [이미나 (2013). '나주 사건' 피해자 엄마 "고종석보다 더한 건 바로 언론사." 한국경제 키즈맘.]
- Lee, N. (2018). The media's response to the #MeToo movement. *Broadcasting Reporters*, March/April issue, 14-15. [이나영 (2018). '미투 운동'을 대하는 언론의 자세. 방송기자, 3·4월호, 14-15.]
- Lee, S., & Kim, H. (2019). *A comparative study of international practices for building gender-based violence statistics*. Seoul: National Assembly Committee on Women and Families. [이수정·김혜진 (2019). <젠더폭력 통계 구축 방안을 위한 해외 사례 비교 연구>. 서울: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Lee, S., & Kim, Y. (2008). A study of the media coverage of crimes and infringement of individual rights. *Journal of Social Science*, 19, 65-94. [이승선·김연식 (2008).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19권, 65-94.]
- Lee, W., Hong, S. C., Song, S., & Choi, M. (2016). *Crime reporting in the digit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crime reporting in Korea*.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이완수·홍성철·송상근·최명일 (2016). <디지털 환경에서 범죄보도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 범죄보도의 특성과 문제점>.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Lindsay-Brisbin, J., DePrince, A. P., & Welton-Mitchell, C. (2014). Missed opportunities: Newspaper reports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3, 383-399.
- Marsh, H. (1991). A comparative analysis of crime coverage in newspaper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from 1960-1989: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9(1), 67-79.
- Morgan, J., & Simons, M. (2018). Changing media coverage of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ism Practice*, 12(9), 1165-1182.
- Nam, H.-D. (2022, July 28). *'Inha University sexual assault and death' article, rewritten with reflection*. The

- Money Today. Retrieved 07/30/23 fr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272040589557>
- 8 [남형도 (2022). 반성하며 다시 쓴, ‘인하대 성폭력·사망 사건’ 기사. 머니투데이.]
- Neuendorf, K. A. (2002). *The content analysis guidebook*. Thousand Oaks, CA: Sage.
- Noh, S.-H., & Lee, K.-W. (1996). *The crime reporting practice in Korean mass media (Research Series 96-8)*.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노성호·이기용 (1996). <한국언론의 범죄 보도관행 (연구총서 96-8)>.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agelow, M. D. (1981). *Women battering: Victims and their experiences*. Beverly Hills, CA: Sage.
- Park, D. (2021, December 27). *Setting the record straight on gendered crime statistic*. The Hakyoreh21. Retrieved 7/30/23 from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398.html](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398.html). [박다해 (2021). ‘배우자’ 인지도 모르는 젠더 범죄통계, 바로잡는다. 한겨레21.]
- Park, J. (2004). *The elements of shaping newspapers*. Seoul: The Korea Media Research Center. [박재영 (2004). <신문 지면의 구성 요소>. 서울: 미디어연구소.]
- Park, S., & Yoon, Y. (2016). News quality of reporting on investigation and trial : A study on accuracy, depth, and impartiality of broadcasting new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0(4), 83-120. [박성호·윤영민 (2016). 방송 범죄뉴스의 품질 연구: 정확성, 심층성, 불편부당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0권 4호, 83-120.]
- Park, S.-K. (2022). Visualization of gender-based violence in Mexico: From “las mertas” in Ciudad Juarez to typification of femicide as crime. *Women & History*, 36, 269-315. [박수경 (2022). 멕시코의 여성 살해 가시화하기: 시우닷 후아레스의 ‘죽은 여성들’부터 페미니시디오 입법화까지. <여성과 역사>, 36호, 269-315.]
- Park, T.-H. (2014, March 20). *Court awards 78 million won to media outlet for over-reporting 'Naju child sexual assault'*. The Segye Ilbo. Retrieved 11/20/23 from <https://www.segye.com/newsView/20140320000738> [박태호 (2014). 法, '나주 어린이 성폭행' 과잉 보도한 언론사 7800만원 배상 판결. 세계일보.]
- Park, Y.-G. (2001). A study on the history of newspaper crime reports in Korea: Focusing on a content analysis of crime news. *Korea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5(2), 156-185. [박용규 (2001).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범죄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156-185.]
- Pepin, J. R. (2016). Nobody's business? White male privilege in media coverag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Sociological Spectrum*. 36(3), 123-141.

-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4). *Report on media-related court decisions*. Seoul: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언론중재위원회 (2014).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Richards, T., Gillespie, K. L., & Smith, M. D. (2011). Exploring news coverage of femicide: Does reporting the news add insult to injury? *Feminist Criminology*, 6(3), 178-202.
- Sacco, V. F. (1995). Media constructions of crim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39, 141-154.
- Scherman, A., & Etchegaray, N. (2021). News frames in the context of a substantial increase in migration: Differences between media platforms and immigrants' nation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5, 5051-5073.
- Scheufele, D.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 103-122.
- Schudson, M. (1978).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 박경우·여은호 (역) (2019). <뉴스의 발견: 미국 신문의 사회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Sheley, J., & Ashkins, C. D. (1981). Crime, crime news and crime views. *Public Opinion Quarterly*, 45, 492-506.
- Song, Y. J., & Hong, J. (2018). TV news coverage of sexual crimes: Focusing on attention of new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cident attribute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2(3), 31-68. [송영준·홍주영 (2018). TV의 성범죄보도 연구: 뉴스의 주목, 정보 공개, 귀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2권 3호, 31-68.]
- Sutherland, G., Eastal, P., Holland, K., & Vaughan, C. (2019). Mediated representation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mainstream news in Australia. *BMC Public Health*, 19(502), 1-8.
- Taylor, R. (2009). Slain and slandered: A content analysis of the portrayal of femicide in crime news. *Homicide Studies*, 13(1), 21-49.
- Valkenburg, P. M., Semtko, H. A., & De Vreese, C. H. (1999). The effects of news frames on readers' thought and recall. *Communication Research*, 26(5), 550-569.
- Yang, Y., & Lee, W. (2020). What's the problem with the Korean media's crime reporting?: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reporters and crime news monitor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10, 44-83. [양영유·이완수 (2020). 한국 언론의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사건기자들과 범죄뉴스 모니터 집단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국언론정보학보>, 10호, 44-83.]

- Yoo, S. Y. (1999). The feminine myth that sexual assault constitutes. In M. Kim, K. H. Jung, & S. H. Yoo, (Eds.), *Mass media and the politics of sexuality* (pp. 95-143). Seoul: Nanam. [유선영 (1999). 성범죄가 구성하는 여성 신화. 김명혜, 정기현, 유세현 (편), 대중매체와 성의 정치학 (pp. 95-143). 서울: 나남출판사.]
- Yoon, S. (2000). Journalists under pressure from lawsuits: Exploiting vested interests and becoming neurotic. *Newspaper & Broadcasting*, 352, 57-60. [윤성한 (2000). 소송부담에 시달리는 기자들: “기득권층 악용”, 노이로제 현상도. <신문과 방송>, 352호, 57-60.]
- Yoon, Y. (2021). *An introduction to media content analysis*. Seoul: Communication Books. [윤영민 (2021). 미디어 내용분석 입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최초 투고일 2023년 08월 13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1월 23일  
논문 수정일 2024년 01월 28일